

전반적으로 각기 다른 개성을 갖춘 참가자들이 많아 인상적이었습니다. 최근의 음악 경향을 잘 반영한 음악가가 있는가 하면, 여러 장르의 조화를 꾀한 음악가도 적지 않았습니다. 각자의 스타일을 잘 드러내면서도 탄탄한 음악적 바탕을 들려주어 흥미로웠고, 앞으로 음악계를 이끌어갈 유망주들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